



한성건설 정성우 대표, 정읍시에 장학금 기탁

정읍시민장학재단은 지난 24일 (주)한성건설 정성우 대표가 모친상 조의금 가운데 일부를 지역 인재 육성에 써달라며 장학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을 양성하는 데 보탬이 되고자 이번 기부를 결심했다. 지난 2019년에도 장학금을 건넨 바 있는 그는 뜻깊은 나눔을 한 번 더 실천하며 인재 육성을 향한 변함없는 관심을 증명했다.

정성우 대표는 "어려운 시기일수록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마음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학생들이 꿈을 이루고 지역의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후 수시장은 "가족을 잃은 슬픔 가운데서도 지역의 미래를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정성우 대표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기탁해 주신 소중한 장학금은 지역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키워낼 수 있도록 뜻깊게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남원 금동, 사랑의 감자 수확·나눔

남원시 금동(동장 김봉래) 관계자는 6월 17일, 동 우리 동네 사랑나눔 텃밭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민들이 함께 가꾸는 감자를 수확했다.

주민들은 수시로 밭을 찾아 잡초를 제거하고 작황을 살피며 밭 주변을 정비하는 등 우렁각시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텃밭을 돌본 덕분에 감자는 일차게 영글었다.

금동은 수확한 감자를 복거노인과 장애인 가구,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정, 마을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까지 고루 전했다.

특히 감자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대상 가정을 직접 방문해 안부를 살피고 생활 속 불편사항을 청취하는 등 평소 추진하고 있는 1일1가구 방문과 연계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냈다.

수확한 감자는 단순한 나눔을 넘어 25일에는 금동 시책 반짝반짝 금동 냉장고 부타해와사업과 반찬나눔 사업과도 연계해 통장과 새마을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주민들이 감자조림 등 밑반찬을 직접 만들었다.

주민들의 밭과 정성으로 수확한 감자는 따뜻한 반찬이 되어 식생활 지원이 이처럼 우리동네 사랑나눔 텃밭가꾸기 사업은 단순한 농작물 재배 공간을 넘어 주민 참여와 나눔, 안부 확인과 돌봄, 식생활 지원까지 이어지는 지역공동체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

주민들이 함께 즐긴 밭방울은 어려운 이웃의 식탁을 채우고, 안부를 묻는 감자 수확이 끝난 후 주민들은 현재 또 다른 유희 텃밭에 고구미를 가꾸고 있으며, 오는 가을에 고구마 나눔행사를 통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과 수확의 기쁨을 다시 한번 나눌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선운산농협 등, 고령 농업인 주거환경 개선

농협중앙회 고창군지부(지부장 이미정)와 선운산농협(조합장 김기욱)은 고창군 이산면에 거주하는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노후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농업인행복복합센터(☎1522-5000)를 통해 접수된 지원 대상자를 위해 마련됐으며, NH농촌현장봉사단과 농협 임직원,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도배와 장판 교체 작업을 실시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했다.

지원을 받은 김모씨는 "농협의 도움으로 생활환경이 한층 좋아졌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소통·공감으로 자립준비청년 응원

전기안전공사, '안아드림 토크콘서트' 개최... 취업·성장 지원도 확대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가 자립준비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미래 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 24일 전주시 완산구 소재 한 카페에서 자립준비청년의 건강한 사회 정착과 성장을 응원하기 위한 '안아드림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자립준비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자신감과 도전 의식을 키우고 자립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고민을 나누며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아드림 토크콘서트'는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전북특별자치도, 전북도자립지원담당관, 새만금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등이 함께 추진하는 '드림 ON 프로젝트'의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지난 2021년부터 자립준비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해 오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전북지역 자립준비청년과 협력기관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사회적기업 브러더스키퍼의 창업자인 김성민 대표가 멘토로 나서 자신의 성장 과정과 자립 경험을 공유했다.

김 대표는 보육원 퇴소 이후 겪었던 시행착오와 도전 사회적기업 창업 과정에서의 경험을 진솔하게 들려주며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조언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멘토와의 대화를 통해 취업과 진로, 경제 적 지원, 사회 적응 등 현실적인 고민을 나누며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남화영 사장은 "이번 토크콘서트가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자립준비청년들이 꿈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관심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올해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공개채용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자립준비청년 인턴을 선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사회형평적 채용 확대를 위해 서류전형 가점을 10%로 상향하는 등 제도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공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하반기에도 자립준비청년의 취업 역량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잡아드림', '채워드림' 등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며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남원시, 제76주년 6·25 전쟁 기념행사 개최

남원시는 25일 춘향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제76주년 6·25전쟁 참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6·25전쟁 참전유공자, 각급 기관·단체장, 보훈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 6·25참전유공자회 남원시지회(회장 장영호)가 주관해 1부 식전행사, 2부 기념행사, 3부 위로 연이 진행됐다.

식전행사로 시 낭송과 국악 가요공연, 6·25전쟁 영상 상영을 했으며, 기념식에서는 결의문 낭독, 6·25 노래 제창 및 만세삼창으로 진행, 기념식 이후에는 위로연이 이어져 참전유공자와 참석자들이 함께 식사하며, 전우애를 나누는 따뜻한 시간을 가졌다.

남원시 관계자는 기념사를 통해 "국가에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존중받고 예우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새마을금고 전북 등,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

새마을금고중앙회 전북지역본부와 북부새마을금고가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들의 이동 편의 증진과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차량 지원에 나섰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전북지역본부(지역이사 김성진)와 북부새마을금고(이사장 노인환)는 지난 24일 익산 창혜원에서 MG 사회복지시설 차량지원사업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장애인 등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전달된 차량은 스타디아 하이브리드로 창혜원 이용자들의 병원 진료와 외부 프로그램 참여, 일상 이동 지원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활용될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우즈베크 농업·대학 관계자들, 씨감자 생산시설 방문

김제시농업기술센터는 25일 씨감자 생산 역량 강화를 위해 김제시 첨단농업중자사립소를 방문한 우즈베키스탄 연수생들을 대상으로 기술 교육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첨단농업중자사립소는 조직배양과 인액재배 기술을 통해 증식한 무병 미니씨감자를 매년 1,000여 농가에게 보급하며 안정적인 감자 재배 기반 구축에 힘쓰고 있는 곳이다.

이날 씨감자 생산에 필요한 바이러스 검정과 조직배양, 분무경 생산 기술 등을 소개하고 현장 적용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조직배양실과 온실 등 생산 시설을 둘러보며 과정별 운영 현황을 직접 확인하는 시간도 가졌다.

특히 분무경 시스템 활용 과정과 기술 매뉴얼에 큰 관심을 보이며 귀담아 듣는 모습을 보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행복한집 프로젝트'... 온누리신협,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온누리신협이 지역 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가정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펼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온누리신협(이사장 박근규)은 초록우산 전북본부의 추천을 받아 남원시 노암동 소재 취약 아동·청소년 가구를 대상으로 '신협 행복한집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신협 행복한집 프로젝트'는 신협사회공헌재단의 후원 아래 초록우산과 전주한지협동조합이 협력해 추진하는 신협의 대표 사회공헌사업이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아동·청소년 가정을 대상으로 도배와 장판 교체, 청소 등을 지원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난 2019년 시작된 이 사업에 온누리신협은 초기부터 참여해 올해까지 8년째 지역사회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사업에서는 습도 조절과 유해물질 저감 효과가 뛰어난 친환경 전주한지 벽지와 장판을 사용해 주거환경을 개선했다. 자연 소재의 전주한지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질감으로 아동들의 정서적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건강과 생활환경을 동시에 고려한 지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박근규 이사장을 비롯한 온누리신협 임직원 8명과 전주한지협동조합 관계자 3명이 참여했다. 또한 남원시 여성가족과 드림스타트와 노암동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들도 함께 힘을 보태며 지역사회 협력의 의미를 더했다.

참여자들은 주택 내·외부 청소를 비롯해 벽지 도배와 장판 교체 작업을 진행했으며, 해당 가정의 초등학생 자녀를 위해 학용품과 한지로 제작한 생활용품도 전달했다. 이와 함께 학업 지원을 위한 장학금 50만원도 전달하며 실질적인 지원에 나섰다. /오상근 기자

군 전기안전 강화... 전기안전공사, 계측장비 572대 기증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군 전기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에 나섰다.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는 지난 24일 육군본부에 계측장비 572대를 기증하고 군 전기설비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증식에는 표정재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업운영처장과 전철영 육군본부 전투준비안전단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증 장비의 활용 계획을 공유하고 군 전기안전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사업은 공사가 보유한 미사용 계측장비를 정비·재조립해 재사용 뒤 군부대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지원순환을 통한 ESG 경영 실천과 군 전기안전 인프라 확충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증된 장비는 △디지탈다기능계측기 △직와선 열화상 진단장비 △누설전류계 등 총 5종 572대로, 군부대 전기설비



유지관리와 안전점검 업무에 활용될 예정이다.

공사는 장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군부대 50개소를 대상으로 전기설비 기술 컨설팅과 안전진단도 병행한다.

또한 군 전기안전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술교육과 안전진단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군의 전기안전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오상근 기자

고창교육지원청, 향기공예 창업 기초과정 운영

고창교육지원청 특수교육 지원센터는 관내 특수교육 대상학생 학부모의 성장과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2026년 학부모 동아리 프로그램으로 '향기공예 창업 기초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2026년 6월 24일부터 8월 28일까지 매주 수요일 특수교육지원센터 활동실에서 진행되며, 관내 특수교육대상학생 학부모 6명이 참여한다.

'향기공예 창업 기초과정'은 단순한 취미 활동을 넘어 실생활과 진로에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교육으로 마련됐다. 참여 학부모들은 캔들, 방향제, 향기오브제 제작 기술을 익히고 향료와 재료의 특성 및 안전한 사용법을 이해하며, 판매 가능한 향기제품 기획과 제작 역량을 단계적으로 키우게 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시, 민간 사회복지사 역량강화 교육

남원시는 25일 오후, 지리산 소극장에서 관내 민간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제2차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2회차 교육에서는 생생형 AI를 활용한 스마트 복지행정을 주제로 민간 사회복지사들의 디지털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 강성희 한국시디탈교육협회 협회장은 복지 현장에 AI를 접목하는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제시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시 관계자는 "민간 사회복지사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는 곧 시민이 체감하는 스마트 복지 실현의 지름길"이라며, "앞으로도 지역복지의 전문성과 품격을 높이기 위한 역량 강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 금구면 지사협, 맞춤형 생필품 꾸러미 지원

김제시 금구면 행정복지센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최수연, 이하 협의체)가 25일 관내 저소득층 및 독거노인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50세대에 총 500만 원 상당의 맞춤형 생필품 꾸러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최근 지속되는 고유가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기본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사회의 따뜻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상점에서 물품을 조달하여 상생의 의미를 더했다.

이날 협의체 위원들은 실생활에 가장 필요한 식료품(라면, 햇반 김, 통조림 등)과 생필품을 가구당 10만 원 상당으로 구성했으며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해 물품을 전달하고, 하절기를 앞둔 취약계층의 건강 상태와 주거 환경을 살피는 등 따뜻한 안부 인사를 건넸다.

한편 금구면 협의체는 장수어르신 생일축하지원사업, 마을행복과일도시락 지원사업 등을 해마다 추진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